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6. 4. 26 ~ 2016. 5.04

출장지: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출장자: 김상조 연구위원
김남희 책임연구원
백수진 연구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2. 출장기간 : 2016년 4월 26일(화) ~ 5월 4일(수) 7박 9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상조	
	책임연구원	김남희	
	연구원	백수진	

4. 출장목적

- ‘경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역사문화 유적지의 보전과 육성,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보존, 보전, 복원, 재현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고도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방문할 계획임
- 특히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을 방문하여 세계문화유산 및 다양한 유적지 주변의 경관관리 계획, 보존·육성 정책, 등을 조사할 예정임

5.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조사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교통비
4/26 (화)	인천 (09:20)	파리 (14:10)		도착		
4/27 (수)	파리		상젤리제 거리	문화재 주변 상징가로 조성지역 현장답사		
			베르사유 궁	베르사유 궁 및 문화재 복원 및 보존 관리방안 탐구/ 문화재 지역 일대 현장답사		
4/28 (목)	파리		파리 1,2구	역사적 건축물 관리 현황 및 주변지역 현장 답사		
	파리 (17:15)	마드 리드 (19:20)	항공 (2시간05분)			
4/29 (금)	마드 리드	세고 비아	세고비아주 시청 건축사사무소	담장자 인터뷰 및 관련자료 수집 세고비아 시청 건축 문화유산과	MR. Manuel Marcos Ramón	
4/30 (토)	톨레도		톨레도지구	톨레도의 세계유산 역사도시 지정 및 경관 재구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탐구		
	마드리드		마드리드 시청, 마요르 광장, 솔광장 일대	마드리드 구도심 도시계획 및 문화유적 주변지역 공간조성 사례 답사		
5/1 (일)	마드 리드	바르셀 로나	기차(10:30>13:15) (AVE 약 3시간)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지역	대표적 도시재생사례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지역답사		
5/2 (월)	바르셀로나		까탈로니아 주정부 문화국 (11:00)	담당자 인터뷰 및 관련자료 수집 Generalitat de Catalunya Departament de Cultura (annamorales@gencat.cat) (+34-93-554-72-66)	MR. Irene Solsona	
			구시가지, 에이삼플라치구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카사 밀라, 카사 바프요 등 가우디 건축물 답사		
5/3 (화)	바르셀로나 (18:00)		이동(항공)_파리경유			
5/4 (수)	인천 (15:00)		도착			

II. 주요 조사내용

1. 프랑스_파리

1) 개요

○ 파리 도시개요

- 파리를 구성하는 대단위 구역들(Les Grands Zones)을 다루는 개발정책은 크게 도시 중심구역들 및 역사적 중심부(18세기에 확정된 파리)를 구축하는 건축적 틀과 이 중심부를 둘러싸며 파리를 구축하는 외곽을 형성하는 구역들(Les Arrondissements Périphériques)에 대한 재정비를 기본구조로 함
- 도시 중심구역들 및 역사적 중심부(18세기에 확정된 파리)를 구축하는 건축적 틀의 재정비 내용으로는 전통지구의 보존과 주거 및 전통적인 몇몇 주요한 활동이 함께 존재하는 특징적인 삶의 틀을 유지



출처 : 구글지도(maps.goog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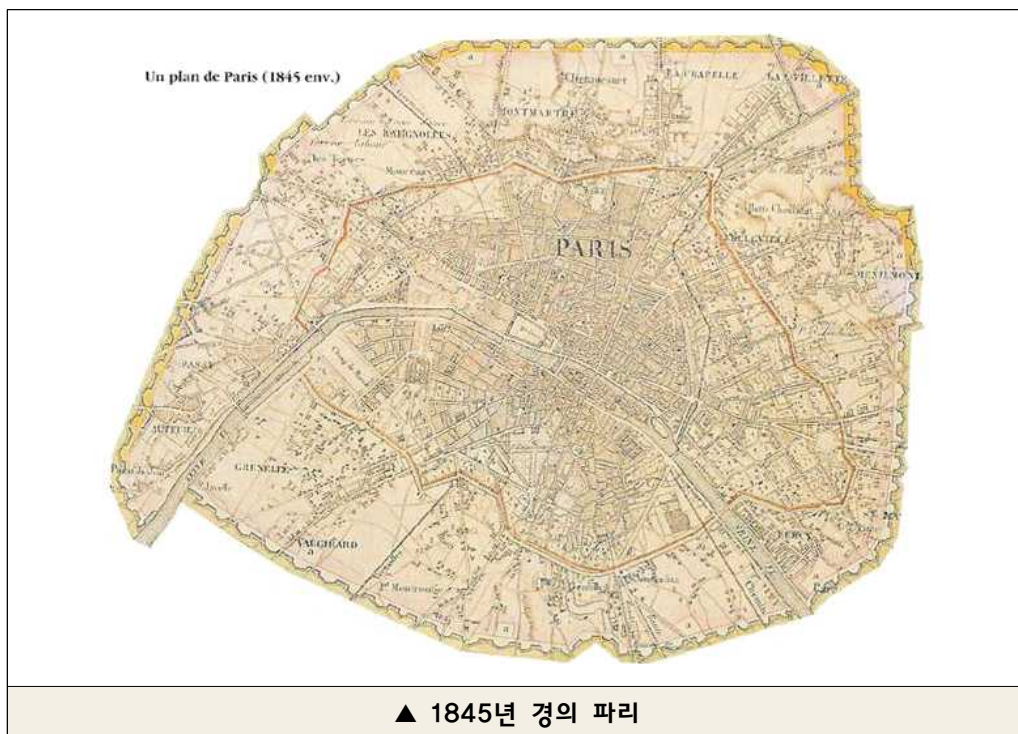
2) 주요 조사내용

○ 일반현황

- 위치 : 프랑스 북부 일드 프랑스 지방의 중앙에 위치
- 면적 : 105km²
- 인구 : 약 224만 4천명
- 입지 : 센 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음

○ 유적관리 제도

- 프랑스의 문화재 개념은 18세기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레그아르 신부는 국가적 물품에 대하여 이는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국민에게 속해야 하며, 모든 시민은 과학적, 예술적 유물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 1791년 문화재 위원회 설치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호
- 1830년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같은 문화재 관리소를 설치하고 1887년 법을 제정함
-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는 20세기 초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1980년대 지방분권화로 인해 현재는 중앙정부+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음



○ 상제리제 거리

- 1670년 툴리리 공원을 설계한 ‘앙드레 르 노트르’의 초안으로 탄생된 아브뉴 상제리제는 처음 툴리리 공원을 이어 줄 직선 대로를 위해 기획됨
- 처음에는 이 거리를 중심으로 몇몇의 화려하고 고풍스런 호텔들이 들어섰으며, 그에 이어 극장과 카페, 식당 등이 하나하나 세워져 화려한 거리의 윤곽을 드러내고, 그 길을 귀족들은 산책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고풍스럽고 성대했던 모습이 차츰 변형되었음
- 거듭되는 도시 계획으로 인해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했지만 화려하고 귀족스럽던 옛 모습은 빛을 잃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명성 또한 불분명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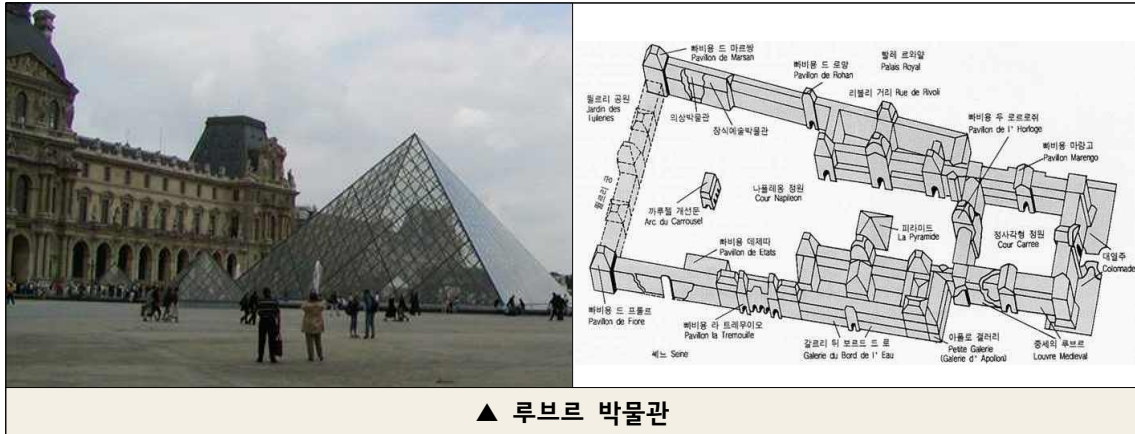
▲ 상제리제 거리

- 그리고 프랑스 경제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행들과 국제적인 기업들의 파리지사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명브랜드들의 쇼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이어서 상제리제 거리를 사선으로 잇고 있는 마르뵈프거리에는 1800년 말경에 세워진 아르누보 형식의 장식물들을 지닌 건물들이 간간이 그 모습을 품은 채 세기를 넘어오고 있으며, 쥘랑이나, 라뒤레가 자리한 건물은 1800년경에 문을 열어 실내장식이나 건축 구조물들을 그 당시의 모습대로 보존해오고 있음

○ 루브르 박물관

- 최초의 루브르는 1200년 필립 오귀스트 왕 때 파리의 수호 성곽으로 루브르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루브르 박물관은 건축가 피에로 레스코에 의해 1546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함
-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피라미드는 1981년 계획된 루브르 전체 건물을 박물관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미테랑 대통령의 대 루브르 계획안의 일환으로 건설

- 1983년에 착공해서 1989년에 완공된 유리의 피라미드는 박물관의 일반인 출입구로써 내부 유적 발굴과 전체 보수비를 포함해서 20억 프랑이 투자 되었다고 함
- 초기에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준공은 루브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음



○ 베르사유 궁전

-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당시 최고의 건축가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 궁전내 수많은 방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됨
-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에 속한 유적 발굴 기관이 따로 있으며, 베르사유 궁은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따로 관리 받고 있음
- 베르사유 궁전 내에는 길이만 약 2.5km가 넘는 정원이 있으며, 정원 내에 대운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2. 스페인_세고비아

1) 개요

○ 세고비아 도시개요

- 세고비아 시는 BC 700년 무렵부터 이베리아인이 거주하였으며 BC 1세기 말에 로마의 식민시가 됨
- 11세기에 이슬람교도가 침입하여 도시가 파괴되었으나 카스티야왕국의 알폰소 10세는 이곳을 수도로 정함
- 세고비아 시는 옛 성벽으로 둘러싸인 상부 시가지와 성벽 밖의 하부 시가지로 구분 되고 있음
- 옛 시가지의 중심은 마요르 광장으로 16세기에 지어진 고딕양식의 대성당이 있음. 이곳으로부터 교외지역으로 길들이 이어짐
- 아소게호 광장은 교통의 중심지로 로마시대의 수도교가 지나가고 있음



출처 : 구글지도(maps.google.co.kr)

2) 주요 조사내용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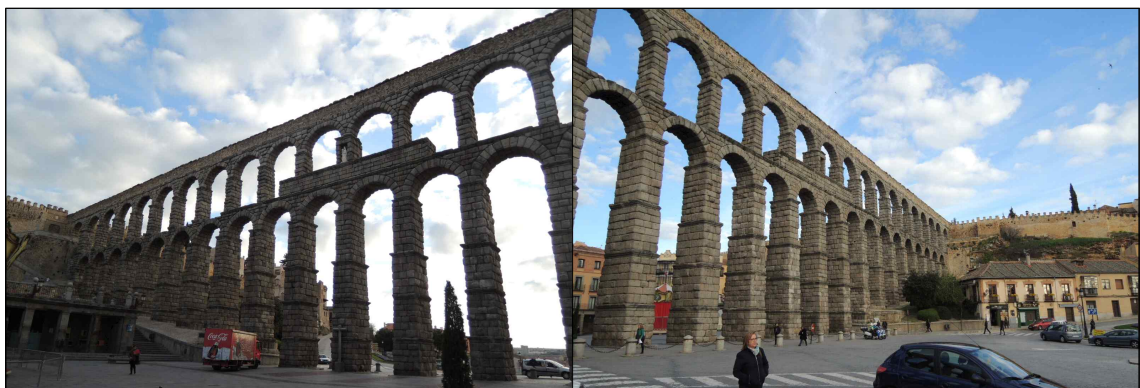
- 위치 :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스페인 중부도시
- 면적 : 163.59km²
- 인구 : 약 5만3천명
- 입지 : 과다라마 산맥 기슭 해발 평균고도 1,000m 지점에 입지

○ 유적관리 제도

- 스페인의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제도는 중앙정부의 “스페인문화유산법(Ley de Patrimonio Historico Espanol)”, 가스띠아-라만차(Castilla-La Mancha) 주(州) 정부의 ”역사유산법(Ley del Suelo)”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 고도(historic city)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전, 관리할 수 있음
- 이러한 특별법에 따라 유적지에 대한 유지·복원에 대해서는 시청에 권한이 없고 가톨릭, 주 지방정부 등 소유권에 따라 관리

○ 세고비아 수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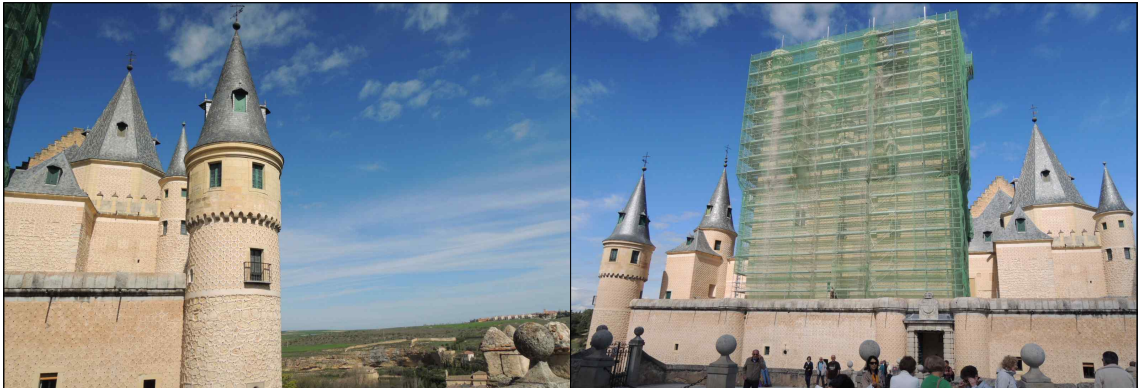
- 세고비아의 상징인 로마 수도교는 서기50년경 클라우디스 황제 시절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한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짐
- 수도교는 벽돌만 2만 여개나 사용되었으며 전체 길이 728m, 아치의 수는 167개 최대 높이28.29m로서 로마시대가 남겨놓은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건축물 중 하나임
- 이 수도교는 1985년 톨레도 역사지구보다 1년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짐
- 수도교를 중심으로 세고비아 역사지구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음



▲ 세고비아 수도교

○ 세고비아 알카사르

- 세고비아 알카사르 성은 세고비아 서쪽 시내를 끼고 흐르는 에레스마강과 클라모레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
- 14세기 중엽 처음으로 성이 건축된 뒤 수 세기에 걸쳐 알카사르에 살았던 왕들에 의하여 증축과 개축이 거듭되었다고 함
- 16~18세기에는 알카사르 일부가 감옥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1862년에 화재로 불탄 것을 복원
- 현재는 성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옛 왕족이 사용하던 침구 등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으며, 대포나 갑옷 등 전쟁관련 용품을 전시해 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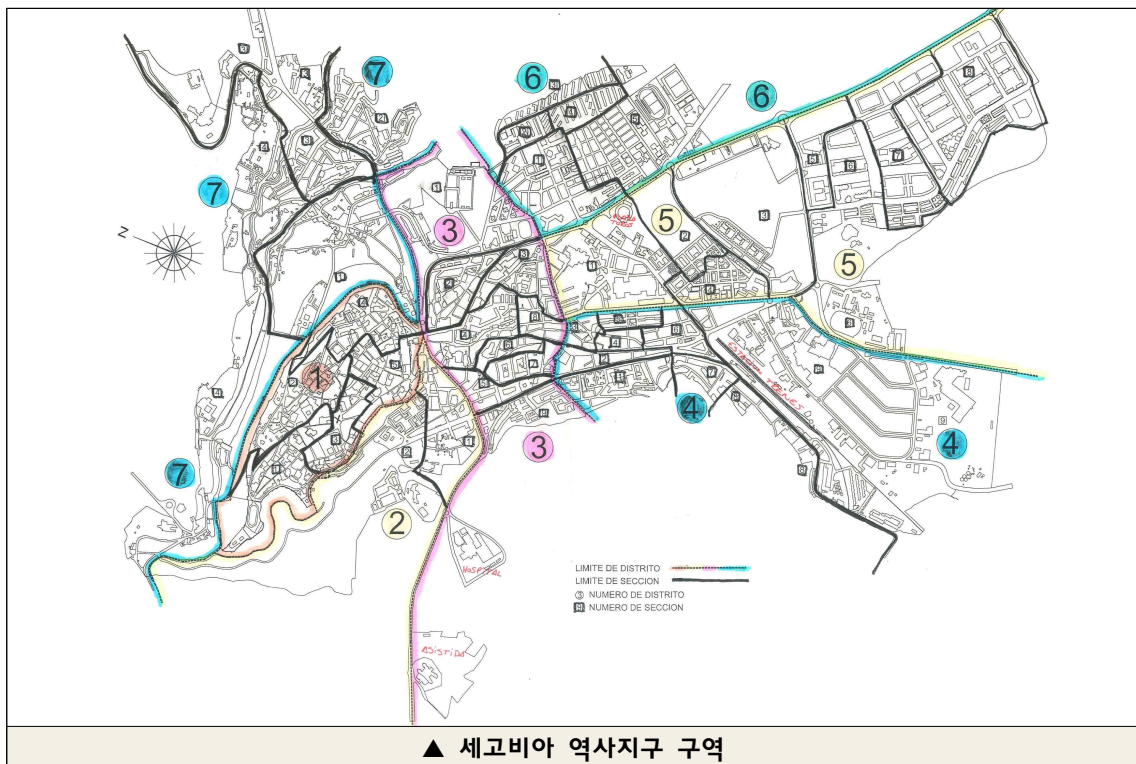
▲ 알카사르 성 보수작업 중



▲ 세고비아 현장사진

3) 주요 회의내용

- 기관 : 세고비아 시청 건축 문화유산과
 - 회의장소 : Calle de la Judería Vieja, 12, Segovia
 - 회의일자 : 2016. 04. 29. 오전 9시
 - 담당자 : MR. Manuel Marcos Ramón
 - 참석자 : Belén Peña González, Leopoldo Yoldi Enriquez,
Piedad Maroto Roldán
- 세고비아 수도교 1985년 문화유산 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1년전에 신설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음
 - 세고비아 수도교를 중심으로 구역을 7개로 나누어 역사지구 지정. 역사지구는 보호, 복원, 유지, 활성화 등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내용이 다름



- 역사지구 지정 시 경계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 1985년 문화유산법이 제정되면서 지정 건축물들은 재산세 면제
- 세고비아 역사지구 내 인구는 15년전 약 4천명에서 현재 약 2천명으로 감소한 추세임
- 관광객들이 많아져 활성화되어 보이는 듯 하나 가게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거주가구가 없어짐

- 톨레도는 현재 지원금이 많아 고도 특별법이 통과 되었으니 세고비아는 60년대부터 고도 특별법을 수립해오고 있으나 법안통과가 어려움
- 역사도시 내 1400여개의 건물이 있으며 건축물 관리는 구역별로 계획하지 않고 건물 1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각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재질, 형태 등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건축물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몫이라는 차원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음



3. 스페인_톨레도

1) 개요

○ 톨레도 도시개요

- 스페인 고원지대에 위치. 로마시대 이후 비시고트족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수도로 정하여 운영함
- 이후 스페인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나 아랍에 의해 점령당한 후 도시가 역할에 따라 성곽, 정치, 군사, 거주, 종교 공간으로 분리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됨
- 1986년 11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산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 건축물, 종교, 민족 등 복합문화가 집약된 역사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 스페인의 고대, 중세, 근·현대사를 함께하여 현재까지도 스페인의 정신적 수도로 불리우고 있음



출처 : 구글지도(maps.google.co.kr)

2) 주요 조사내용

○ 일반현황

- 위치 :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스페인 중부도시
- 면적 : 230km²
- 인구 : 약 8만6천명
- 입지 : 타호강 연안 해발고도 530m 언덕에 입지

○ 톨레도 역사지구

- 1986년 유네스코가 톨레도 역사지구(Historic Center)를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
- 톨레도 역사지구의 인구감소 및 고도(古都)의 슬럼화를 막기 위한 엄격한 경관 보존구역 설정
- 세계유산 등재 이후 1997년 「고도특별계획법」 제정 및 2001년 「도시 내 건축물과 거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 수립
- 톨레도 역사지구의 경우 문화유산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태, 자제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내부구조에 대한 큰 제약 요건은 없음
-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만 차량 등록증을 발급해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지구 외부에 주차 공간 및 교통관련 시설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차량출입 통제하고 있음

○ 유적 관리현황

- 200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구시가지 복원 등에 지원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없어졌으며 관광수입으로 유지
- 역사지구의 규제에 대하여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주민의 반발은 미미함
- 건축물의 개보수 시 외관, 창틀 등 지역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함
- 아래의 사진은 톨레도 내에 위치한 유적지 상단에 건축되어 있는 상점
- 지하에 매장 유적의 가시화 및 공간 활용을 위하여 유리로 보호각을 씌워 유적을 가시화 하고, 상단을 공간을 상점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유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상단에 위치한 상점

○ 톨레도 알카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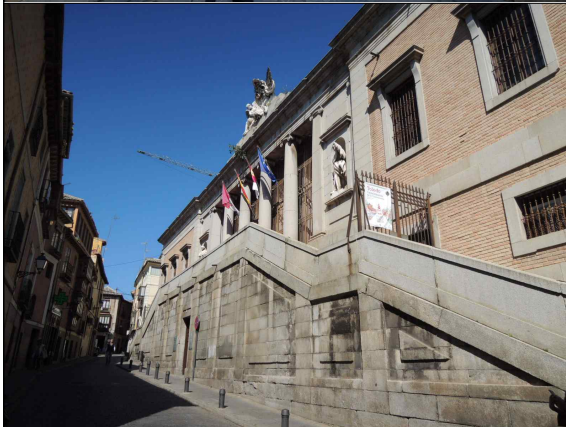
- 톨레도 알카사르 박물관은 20세기 스페인 내전 때까지 요새로 사용되었으며, 스페인 내전 당시 거의 대부분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임
- 성의 일부를 복원한 것을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무너졌던 성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래의 사진과 같이 성의 내부를 완벽히 복원하지 않고 전쟁 시 파괴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는
- 성의 외부의 일부는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현대적시설로 증축하여 박물관을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와 매표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톨레도 알카사르 모형



▲ 톨레도 알카사르



▲ 톨레도 현장사진

4. 스페인_바르셀로나

1) 개요

○ 바르셀로나 도시개요

-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스페인 주요 항구이며 상업의 중심지이자 피카소와 천재 건축가 가우디로 유명한 문화·관광 도시임
- 도시는 격자형 구조를 띄고 있으며 그란비아 대로에 있는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19세기 초 까탈루냐 지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고 도시를 확장하고자 성벽을 허물어 도시를 구획하여 현재의 도시구조를 이루게 됨



출처 : 구글지도(maps.google.co.kr)

2) 주요 조사내용

○ 일반현황

- 위치 :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프랑스 남쪽 페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에 위치
- 면적 : 101.9km²
- 인구 : 약 160만2천명

○ 바르셀로나 고딱지구

-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1995년에 자치주계획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건축물 및 문화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현재 구시가지인 고딱지구에는 중세 로마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시가지에는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가우디 건축물과 올림픽 개최 로 인해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가우디 건축물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개보수는 규제사항에 맞추어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짐
- 대신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입장료 등과 같은 수입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음

○ 람브라스 거리

- 람브라스 거리는 해변에서 까탈루냐 광장까지 이어지는 약 1km의 거리임
- 람브라스 거리에는 거리예술가 및 상점이 이어져 있어 여행객과 현지인으로 붐비고 있음. 또한 거리 중간에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남
- 또한 주변 건축물들은 대부분 호텔, 금융, 쇼핑몰이 밀집하고 있음
- 람브라스 거리는 건물-보도-차도(1차선)-중앙보도(상점 및 예술가)-차도(1차선)-보도-건물로 구성되어 보행하기에 좋음
- 또한 건물 벽면과 비슷한 재질로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어 건축물 외부 환경에 대한 규제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람브라스 거리

○ 가우디 건축물

- 바르셀로나 관광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우디 건축물은 1883년부터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까사밀라, 구엘공원 등 바르셀로나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
- 이 중 까사밀라는 198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까사밀라 내부는 실제 저택으로 쓰일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우디 건축물과 같이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의 조화를 위해 주변건축물의 높이와 형태를 규제하고 있음
- 가우디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2-3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우디 재단과 협조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
- 가우디 건축물의 관리비용은 개인과 정부, 전시관 관람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 가우디 건축물

3) 주요 회의내용 요약

- 기관 : 까탈루냐주정부 문화부 고문서/도서/박물관/유산
- 회의장소 : Direcció General d'Arxius, Biblioteques, Museus i Patrimoni
- 회의시간 : 오전 11시
- 담당자 : MR. Jusèp Maria Boya i Busquet (Director general 담당국장 및 박물관장)
- 참석자 : Museos y Patrimonio, Elsa Ibar, Elena Belart, Marina Miquel, Irene Solsona

□ 주요 회의 내용

-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 관리 업무를 바르셀로나 시와 중앙정부의 분담 방안
 - 현재 까탈루냐 자치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화유산 및 건축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음
 - 도시내 2000여개의 건축물이 관리 대상이지만 현재 주정부에서는 20개의 건축물만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나머지 건축물의 관리는 지역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건축물의 수리 및 용도변경 시 지역심의를 통과해야 함
 - 건축물은 특히 용도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음. 문화유적 및 주변부 건축물은 대부분 도서관, 관공서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 문화유산 및 가치 있는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관리기준
 - 까탈루냐 주 정부에서는 형체가 없는 유적은 관리하지 않으며, 형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유적으로 지정하여 활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용도 및 건축물의 형태를 규제하는 대신 관광수익을 얻어 건축물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III. 결론 및 시사점

□ 문화재 보전과 활용의 상생

- 우리나라의 90년대까지의 개발방식은 전면철거와 신축으로 도시의 외적인 모습만 바꾸어 나가고 있고, 역사적 도시의 관리방안은 문화재는 보존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은 옛 모습을 보전하기 위한 강한 규제를 받는 대립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음
- 최근 몇 년 사이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도시의 재생으로 바뀌면서 지역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재조명 되어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와 더불어 주변지역까지 강력한 규제로 보존 위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활용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없음
- 톨레도 알카사르의 경우 문화재의 계승과 활용이라는 양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의 전체를 복원하지 않고 일부는 현대적 건축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문화재의 보존만을 강조하지 말고 보존과 더불어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역사도시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필요

- 세고비아와 바르셀로나의 경우 역사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며, 역사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현재 고도지구로 지정되어진 4개 고도(경주, 공주, 익산, 부여)는 역사문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건축물의 수선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음
- 지금은 역사문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추후 정부의 지원이 없을 시를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규제에 인한 피해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는 주민인식 전환이 필요함